

# 상품 강매·바가지... 주한 외국인은 봉(?)

## '외국인 소비생활 실태' 보고서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난해 말 현재 53만6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를 넘어서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폐쇄적인 자세는 여전히 잔존하고 나타났다.

시식코너에서 맛을 보고 가는 외국인을 붙잡아 놓고 "먹었으면 사야지, 왜 그냥 가냐"면서 막까지 쓰고,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월세를 높게 책정할 뿐 아니라 1~2년 치를 선불로 내라고 하는 사례도 많다. 외국인들에게는 광고나 설명 내용과는 다른 상품을 내주는 경우도 있으며 고질적인 문제인 바가지 가격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직장·유학·

## 42%가 "언어소통 등 곤란 소비생활 불만족"

### 비싼 월세·선불 강요...휴대폰 구입 때 예치금도

이민 등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5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거주 외국인 소비생활 실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외국인의 42% "소비생활 불만족"=한국에서의 소비생활에 대해 전체 응답자 545명의 41.7%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거주목적별로 나눠 소비생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4점 만점을 기준으로 직장인이 2.76점이었고 다음으로 유학·연수생 2.55점, 결혼·이민·이주자 2.47점 등이었다.

소비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언어소통

곤란이 35.9%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 부족 28.3%, 경제력 부족 22.0%, 정보 부족 19.7%, 국가 문화·제도 차이 16.6% 등이었다.

▲상품·용역 구매 불만=한국에서 물품·서비스를 구입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웠거나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응답자의 41.0%에 이르렀다. 불만족·피해 사례는 ▲휴대·이동전화서비스 48.7% ▲의류·신발 26.3% ▲의료서비스 15.0% ▲가전제품 14.5% ▲대중교통서비스 12.7% 등 순이었다.

불만족·피해 유형으로는 '외국어 표기·안내 미흡을 비롯한 물품·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이 4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기능·안정성 문제' 37.0%, '바가지 가격' 33.0%였다.

외국인들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친구의 명의를 빌리거나 예치금을 넣어야 하는 사례가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경우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의료가 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노동자 고통 심하다=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을 하다 다쳤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 따르면 중국 여성교포 C씨는 최근 상담소를 방문해 "엄마가 죽는데 회사 측이 돈을 주지 않아 집에 가지 못한다"고 울며 말했다.

/특기자기자 jkpark@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같이엮기' 반복 막을수 없나



송기동

사회2부 차장

진도 '겨울 대파' 농민들이 지난 23일부터 트랙터로 대파 밭을 갈아엎고 나섰다.

농민들은 올해 과잉생산으로 대파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폭락하자 전체 재배면적 1천 843ha의 10%인 184ha(55만 평)를 스스로 폐기하고 있는 것이다. 1년 동안 애써 키운 농작물을 스스로

같이엮어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진도농민회는 이번 자율폐기 이후에도 가격상승 효과가 없을 경우 전체 재배면적의 30%를 정부에서 구매해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도군 역시 판로확대를 위해 대파김치 시식회를 개최하는 등 2월 한 달 동안 공무원 및 유관기관·사회단체를 대상으로 4의 대파 소비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이같은 과잉생산→가격폭락→산지폐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도 대파농가는 2년 전인 지난 2005년 1월에도 30만 평을 같이엮었으며, 2000년에는 밭떼기로 폐기하기도 했다.

진도대파의 과잉생산은 마땅히 겨울철에 심을 작목이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 대파나 배추 외에 마땅한 겨울작목이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겨울 대파'는 진도군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상품이다. 진도 대파는 얼마 전까지 전국 겨울대파 재배면적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진도지역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었다. 그러나 경기·강원·충청지역에서 대파 재배면적이 급증하면서 차츰 진도 대파의 설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국민 1인당 대파소비량마저 2005년 8.3kg에서 2006년 7.7kg으로 감소해 가격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수년 주기로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격하락에 이은 같이엮기 파동'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경기위축과 작황 호조로 관리를 찾지못해 가격이 폭락하는 현 상황에서 누구도 선택 모범답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적정 재배면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배량을 조절하는 것과 대체작목의 개발이다.

물론 어느 것 하나 행정당국이나 생산 농민 한쪽의 일방적 노력만으로 어려운 일이다. 진도 대표상품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농민과 관계당국은 머리를 맞대고 농협 계약물량을 30% 이상으로 대폭 늘리거나 새로운 관로개척, 소비촉진책 등 여러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song@kwangju.co.kr



최규하 前대통령 '100일제' 지난해 10월 타계한 최규하 전 대통령의 '100일제 및 묘비·추모비 제막식'이 29일 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서 열렸다. 이날 제막된 추모비에는 '국가변천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원수로 사명의 짐을 지고 국권수호에 진력했으며 세속의 세찬 바람에는 태산같이 의연함을 보였다'라는 비문이 새겨졌다. /연합뉴스

## 공관장 지휘권 강화 논란

### "업무 통합 시스템 추진 외교부 독주" 반대 목소리

외교통상부가 최근 국정원을 포함한 정부 각 기관의 재외공관 주재관에 대한 공관장의 업무 지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송민순 장관 부임 이후 외교부 출신 직원과 국정원을 비롯한 각 정부부처 주재관들로 구성된 재외공관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공관장에게 보다 강한 업무 지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그 일환으로 국정원측과 지휘체계 통합강화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9일 이를 외교안보라인의 '원톱'이란 평을 듣고 있는 송민순 장관이 지휘하는 외교부의 '독주'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야기됐다.

비록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문제를 제

기한 것은 아니지만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출신으로, 원래 사정에 정통한 정 의원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국정원 내부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외교부와 국정원은 그간 주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해오며 양 기관간 이번 협의는 일부 중복·중첩이 있었던 부분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외교부가 공관장에게 보다 강한 지휘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은 이 같은 공관장의 지휘권한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음으로써 공관 내부의 '기관 이기주의'가 줄곧 문제시 됐기 때문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 "독선 버리고 조정력 갖춰야 성공한 대통령"

### 정치학회 대통령 리더십 학술회의

한국정치학회와 관훈클럽은 29일 '한국 대통령 리더십 학술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리더십의 특징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대선의 해를 맞아 바랍직한 대통령 리더십 모형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분석한 결과, 독선을 버리고 조정 능력을 갖춰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두환 이강로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강력한 '경제 리더십'이 있었지만 부의 편중, 소외계층 양산 등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의 도전을 초래해 1970년대 이후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김대중 대통령 리더십을 분석한 경남대 김용복 교수도 김 대통령이 준비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보수세력이 다수인 의회를 설득하는 리더십이 취약해 국정과제와 개혁정책이 좌초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참원대 안병진 교수는 노무현 대

통령 리더십을 현재의 민의보다 미래 과제만 강조하는 '토폰러주의'와 기득권층과 대립각을 세우는 '포퓰러즘' 두 가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질적인 혁신 없이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반복되거나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대 김형준 교수는 김영삼 대통령의 '총청-TK-PK 선거연합'이 해체된 뒤 '3김 정치'와 지역주의가 부활한 점을 들어 "이념과 철학이 다른 정치세력들이 선거 승리를 위한 정계개편 또는 선거구도를 만들어선안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WTO 각료회의, DDA 협상 재개 합의

농림부는 지난 27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기간에 열린 소규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주요국들이 도하계 받아진다(DD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민통석 농림부 차관보(농업통상정책관)는 이날 브리핑에서 "회의에 참가한 25개 주요국 통상부문 각료들은 DDA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자무

역제와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자 협상 즉시 재개를 실무협상자들에게 지시하고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 차관보는 향후 전망에 대해 "일단 협상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좁혀져 연내 타결에 이르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시작: 2007. 3. 1 (화) 오전 8시

종료: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동 1-1 (광주일보 본사)

참가비용: 4천원 (물류비, 보험료, 참가비, 기념품비)

접수기간: 2007. 1. 31 (수) 까지

신청방법: 전화 02-270-1541

● 시범주행 차를 운행합니다. (전부 1000원 이상)

● 날씨에 따라 행사 진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회기간 동안 내국인 관광객은 입장하지 않습니다.

● 참가비는 참가비 1천원, 물류비 2천원, 기념품비 1천원, 보험료 1천원입니다.

● 접수기간: 2007. 1. 31 (수) 까지

● 문의: 02-270-1541